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강의(23) 소송 아비달마의 지혜, 오온(五蘊)

라소오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앞의 살인 사건 현장의 세 주인공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세계에 개입하는 자아의 활동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세계에 개입하는 자아 활동을 줄여야 이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하,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간의 근본 진실과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을 반 너머 깨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각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가령 노장이나 유교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달마의 오래된 지혜 소송 아비달마의 지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비달마는 "나의 것,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소유'의 환상부터 깨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속한다'가 객관 세계의 자연스런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충동(行)'이 있다." 5) "이 사건을 '의식(識)'하는 과정이 있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적어가는 기술

이렇게 아비달마는 자아에 의해 오염된 인식을 정화하여 객관적 사실만으로 분해 정리해 나갑니다. 앞의 글에서는 그 객관적 사실 가운데 '다섯 무더기', 즉 오온(五蘊)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처는 문득, 시간이 흘러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떠나보낼 때는 눈물이 강을 이루다가도, 곧 죽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가면, 그 무모한 정열이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제들이 심상이지요. 문제의 7할은 쓸데없는 격정이고, 나머지 2할은 내 손을 떠나 있고, 직접 이력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제 1할이 안된다지 않습니다. 거기 집중해서 할 바를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쓰여진 문장들을 읽고 있다

는 만일 왜지들이 신을 생각한다면 그 신은 아마 왜지를 닮아 있을 것이라고 시니컬하게 말할 적이 있습니다.

'소유'는 세계 자체에 속한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한 강제입니다! 아비달마는 그래서 '나'로 시작되거나, '나'를 포함하는 모든 문장들을 잘못 쓰여진 것으로 판정합니다.

1) "두 '물체(色)'가 있다." 그리고 2) "사랑한다는 감정과 슬프고 아쉬운 감정(受)이 있다." 3) "눈물을 흘리는 한 물체가 다른 손 흔드는 물체를 지각(想)한다." 4) "떠나



아비달마는 모든 주관적 판단과 상념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해나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건 흡사 '나'를 '타자(他者)'처럼 말하고 적는 기술(技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 무아(無我)를 각인시키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지혜의 방편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자기 밖에 두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물의 정작성으로부터, 그리고 자아의 과도한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내적 평화와 유대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칠의 특백

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자아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뻔히 보이는 적절한 길을 놓치고 사태를 견딜 수 없는 불행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어디 한 두 번입니까.

"적과의 투쟁은 끝이 났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자신과의 투쟁뿐이다. 그러나 자신과의 투쟁만큼 어려운 싸움도 없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는 때때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눈앞에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나아 보이는 해결책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그토록 느린 속도로 수많은 좌절을 겪어 가면서 한걸음 한걸음 힘겹게 전진해나가는 것이지도 모르겠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사파라...

46 사명대사의 기개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and illustrations. Key dialogue includes: '사명대사', '계란 삶기', '그럼 나도', '맛 위에서부터 삶기?', '삼국시대부터 우리 문물을 받아놓고', '어제 너희가 큰 나라 이냐', '조선에는 무엇이 보물인가?', '그야 당신머리이지', '너의 목을 베어오는 자는 천금쯤...',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은 천리길인데 먹하러 왔소?', '그까사 유점사 명인적에', '왜군이 점령', '잠시 피신했다가', '맨몸으로 들어가니...', '왜장은 말이 안동해 글씨로 묻는다', '육조(六祖)의 이름은 문길래 써주교', '직지연삼이면 바조 견성 성불인데', '어찌 방계국경의 법을 물으러 다니는가?', '희성', '스런데려 보물을 조르기에', '채식과 초의로 지내는 스님을 죽여봤자 보물은 없다', '그렇게 써주니 감동(感) 받고 유유(유)사라진다'

사명대사(1544-1610): 조선 중기 스님. 법명은 유정. 경남 밀양 출생. 직지사로 출가. 금강산서 휴정 스님에게 배우고 입진왜란때 승병장으로 활동. 해인사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누가 묻고 누가 답하나요?

선(禪)이란 나의 부재(不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묻고 누가 있어 대답할 수 있단 말이지요? 네티즌 선객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D 주시자)

답1: 부재는 또한 부재가 아닌 즉, 왜 묻고 대답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없음을 또한 내가 없음이 아닌 즉, 왜 묻고 대답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묻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요지를 빌리면, 부재는 부재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재이며 내가 없음은 내가 없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내가 없음이고, 소멸은 소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소멸입니다.

즉 <임제록>에 나오는 '개시공명(開示公名)이 무실유(無實有)는 모든 빈이름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곧 실상이므로 일체의 표현명구를 떠나서 사실 그 자체를 직관함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토출용궁)

답2: 내가 없다는 한 생각만 안 지으면 나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없다는 생각을 지으니 '내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나도 생각하고 밥 먹고 똥 싸러 뒷간에 가는 놈도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없다면 똥 먹고 똥 싸러 갈 필요도 없지 않겠지요.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참구를 해 보아도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밥도 먹을 줄 알고 그것을 사해서 변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낼 줄도 아는 그것이 있으니 내가 없다는 말만 하면, 그 말하는 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소멸했는데, 무슨 허깨비와 시름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고 환상 속에서 헤매이면 안 됩니다. (종경)

답3: '내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선종에서 즐기차게 걸어온 주제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은 바로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바라보는 관점, 즉 '내가 있다'는 것과 '내가 없다'는 분별심이었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我)의 유무는 결국 분별심의 벽이 허물러진 주객의 융화적 바라보기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학자)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2 9 10 3 11 4 12 5 14 15 6

상식퍼즐

- 1. 창덕궁의 정문으로 보물 제383호 2.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에 창의성과 운색을 더한 산문 문학으로, 뒤에 소설 발달의 모태가 됨 3. 모든 불보살의 깨달음 내용이나 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손 모양 4. 일정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임 5. 거시경제의 상대적 의미 6. 빗돌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눈 을 일컫는 말.

세로

- 1. 돈오했다면 더 이상 뒤를 것이 없어야 하고, 더 이상 뒤를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돈오라 이를 수 있다는 성철 스님의 주장 7. 이름을 적어서 대문 옆에 붙이는 작은 패 8.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9. 관가 노비 10.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 ○○회 11. 참쌀을 찌서 떡메로 친 다음 네모나게 찢어 고물을 문헌 12.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 13. 저승의 길 어귀에 있는 거울로, 죽은 이의 착한 일, 악한 일이 나타난다 함 14. 물체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15. 충북 북동부 도시로, 영월, 단양 등과 접해있음.